

제 101 호

연중 제 31 주일

(강림 후 22)

1974. 11. 3.

숲정이

발행인	김영일
인쇄인	함승호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601번지
가톨릭센터 내 (전화 ③3498)

【강론】

양심 가책과 『찬스』

— 두려워 말고 용단을 내려라 —

김 봉 희 신부

“언론계 밖에서 언론회복이 주장 되었을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웠던가. 언론계 밖에서 언론인의 자성이 촉구 되었을때 우리는 얼마나 창피했던가.” 지난 10월 25일 한국 주요 일간지 기자들이 「언론자유 선언」을 하고 일어섰을때 자체과오를 통감하며 피려한 어느 사설한 토막이다. 그간 얼마나들 고심하고 괴로워 했을까? 본의는 아니었다손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못하고” 양심과 진실을 외면했을 때의 심정들이 오죽했으랴. 그야말로 살을 에고 뼈를 깎는 아픔, 짓눌리는 가책을 견잡지 못했으리라.

아무튼, 못내 석연찮고 한스럽던 언론계가 뒤늦게나마라도 태오각성, 양심과 지성을 되찾고 일어섰구나 생각하니 반갑고 기쁘기 그지없다. 개과천선한 탕아를 맞는 아버지의 심정에 비할까? 숨막히는 상황속에 조아리며 애태우다 가까스로 일어난 그들의 용기와 신념과 비장한 각오에 찬의와 성원을 드리고 싶다. 정말이지, 누워서 잘못을 뒤우치고 돌아선 자들에 축복 아니 베풀것인가? 통회하고 결손하는 마음에 축복있을진저! (시편 50)

그러나 오늘의 착잡한 시국에 아쉬운건 아직도 접점하나. 정작 반성을 하고 회심을 해야 할 우리들은 꿈쩍도 않고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성을 지녔던 언론은 자성(自省)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며 양심을 되찾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행여나 행여나 기다려보는 짓궂은 탕아들, 무모하게 어름장만 놓는 도도한 사람들 또 억대 보석이나 깔고 앉은 고관들이며 짐승재벌(?) , 그리고 그 그늘에 놀아나는 암채사람들.....그들은 모두 언젠가 정신을 차려 대 개준의 용단을 보일것인지 - “현명한 자는 찬스를 행복으로 바꾼다.”는 「G·산타야나」의 말에 흡시나 하고 또 뉘엿이 기대를 걸어본다.

외쳐도 외쳐도 막무가내 답답한 이 인간들 앞에 그래 오늘 주님은 또다시 귀감된 일화 하나를 들려주신다. 저들처럼 비리로 회채를 했던 세무관리 「자캐오」. 그러나 그는 위신도 체면도 더구나 직위따윈 아랑곳도 없이 과감히 창피를 무릅쓰고 나무에 올라 주님의 시선을 끌었다. 사죄를 열망하고 가책중에 속죄와 보상의 기회를 찾던 중 때가 왔다 생각 했을 때 선뜻 용기를 낸것 아닐까? 그리고 솔직히 자기의 부정을 시인한 그자리에 주님은 구원과 축복을 내려주셨고.....(루가 19, 1-10)

흐름다. 때는 왔다. 화해의 성년, 쇠신의성년! 지금이야말로 반성과 속죄로 과오를 씻고 새 삶과 새 역사를 꾸려야할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하노니, 교만에 응크린 가련한 생들아, 기회를 잡고 황금의 이 순시(瞬時)에 용단을 내려라. 역사에 낙인이 찍히기전에-

* 이 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 **입당송**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 주여, 이 몸을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내 구원이시여, 어서 나를 도와 주소서.

(2) 말씀의 전례

□ **제1독서** (지서 11: 23-12: 2)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오니 또한 불쌍히 여기소서.
□ **창세기** ①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높이 기리오리다: 내 하느님, 임금님 기리오리다. 영원토록 당신 이름 높이 기리오리다 날이면 날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 이름 영원토록 찬양하리다. ② :
□ **제2독서** (테살로니카 후서 1: 11-2: 2 성서 p. 471)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에게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주님께서서 영광을 받기를
□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 **복음** (루가 19: 1-10 성서 p. 181)
성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하려 오셨다.

□ 신자들의 기도

1. 정의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이가 지금 정의때문에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가 지금 하고픈 말을 못하며 속에서만 뒤엎킵니까. 얼마나 많은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이나라의 평화를 기원합니까.
주여! 우리의 바깥은 너무나 추워 몸돌바 모르겠읍니다. 나의 열도 주위 기도를 못하겠읍니다. 왜 서로들 추위에 떨어야 합니까. 왜 서로들 포근히 몸을녹일 수 없읍니까.

주여!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서로가 불신을 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주시며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욱 굳센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위령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 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당신을 섬기던 중들의 영혼에게 모든 죄를 풀어 주시고 사하심을 우리 정성된 기도로 연계 하소서.

+ 주여, 이 모두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주..... 아멘

(3) 성찬의 전례 □ 불현 □ 성찬식

□ **영성체송**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살듯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리라.

* 숲정이 산책 *



마 리 아 에 게

박 속 자

초록빛이 소스른 여름날 아침
 담뱃한 안개속에 있습니다.
 마리아!
 그대의 청아함이
 더러워진 이 손을 모으게 합니다.

마리아!
 당신의 자애로우신 하이얀 나래를 펴고
 이 소녀(少女) 마저 싸이게 하소서.
 당신의 은하 빛 고운 세계에
 묻히게 하소서
 영원한 안식의 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리아!
 당신에게 들리는 거룩한 교향악을
 고요히 저의 귀에도 울리게 하소서
 당신을 닮고 싶습니다.
 당신의 해 맑은 미소를
 저도 배우게 하소서



마리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합니다.
 소녀의 어리석음을 보시옵소서
 당신에게 모은
 이 두 손을 잡아주소서.

◆ 간호원 모집

1. 모집인원 2명(미혼여성)
2. 응모자격 경험자
 - ①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
 - ② 국내종합병원 2년이상 근무한자
- 무경험자
 - ① 간호원 면허증 소지자
 - ② 학교장의 추천서를 우선함

3.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2통
 - ② 명함판 사진 2매
 4. 제출기한 74년 11월 1에서 11월 11일까지
 5. 제출처 전주 성모병원 간호과
- 기 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통지함
 전북 전주시 전동 76번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촉 구 한 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주 가톨릭 센터에서 사회 정의를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100여명의 성직자와 수도자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다섯번의 강의를 듣고 토의를 했다. 또한 두번의 미사봉헌을 통해 조국의 앞날을 위해 기도하고 침묵 행진을 가졌다. 사흘 동안의 세미나를 통해서 참가자 일동은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 강의제목
1. 지주교님의 사건경과와 관련한 법률적 사회학적 고찰
 2. 국내외 정치문제
 3. 신학적 입장에서 본 사회정의
 4. 국내 경제 문제
 5. 해방운동의 영성(靈性)

엘리아, 모세, 예수의 사막의 영성과 현실에 대한 예언은 합치된 것이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종교뿐 아니라 세속적 문제에 대해서 엘리아, 에레미아, 모세가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였다.

예수님이 사형당한 죄목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국사범이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지도층인 바리새이와 사두세이에 정면으로 도전한 때문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협적 존재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실상, 당시 예수님은 기존 가치에서 소외된 변두리 인생인 어부, 창녀, 세리(稅吏) 등을 벗으로 맞이하였다. 이와같은 예수의 태도는 차츰 집권층과의 분쟁 갈등을 격화시켜 마침내 정치적 범죄조작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당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절감하면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주관한 사회정의 구현 세미나를 통해 우리 자신의 미흡함을 통감하고,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의 지금까지의 주장을 적극 지지하면서 아래 몇가지를 촉구한다.

1. 우리는 언론인들의 언론자유 수호선언이 그들의 사명감에서 우러난 지극히 적절한 선언임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사실보도에 더욱 성실할 뿐아니라 현실을 비판하는 본연의 기능마저 하루속히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교수들 포함하는 모든 양심적 지식인들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특권층과 지도층이 자신의 부정부패를 깊이 뉘우치고 일소할 것을 촉구한다.

1974. 10. 31

사회정의를 위한 세미나 참가자 일동

이 주간의 성경

- 4 (월) 성 까롤로보로메오 주교기념
독서 (로마 12: 3-13 성서 p. 362)
복음 (요한 10: 11-16 성서 p. 231)
- 5 (화) 독서 (필립비 2: 5-11 성서 p. 450)
복음 (루 가 14: 15-24 성서 p. 170)
- 6 (수) 독서 (필립비 2: 12-18 성서 p. 451)
복음 (루 가 14: 25-23 성서 p. 171)

요십이 (67) 김병오



□시간안내□

루가 복음 해설

신자들의 복상 길잡이 1,300원

성 바오로 서원 (T. 2-7398)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요한 1서 3: 16)

- 7 (목) 독서 (필립비 3: 3-8 성서 p. 452)
복음 (루 가 15: 1-10 성서 p. 171)
- 8 (금) 독서 (필립비 3: 17-4: 1 성서 p. 453)
복음 (루 가 16: 1-8 성서 p. 174)
- 9 (토) △라메라노 대 성전 축성 축일
독서 (코린토 전서 3: 9-11, 16-17 성서 p. 375)
복음 (요한 2: 13-22 성서 p. 206)

제 4 지구 6개 분당 소식

1. 전주 교구 성년 대회 (11월 24일)
성년을 더욱 뜻있게 보내기 위한 교구 성년대회에 모든 교우들의 빠짐없는 참여 바랍니다.
2. 전주 지구 교육부 행사 결과



	중 앙	노송동	덕 진	복 자	서학동	진 동
중·고등학생회 체육대회	3	1 등	2 등	3 등	6 등	5 등
아동 교리반 성가 경연대회 (합창부)	1 등	2 등				3 등

3. 전주 교구 J.O.C 체육대회 (11월 3일 해성학교 교정)
J.O.C 체육대회가 있사오니 많은분의 협력과 각 세손의 적극적 참여 바랍니다.
4. 옥중에서 고령받고 있는 학생, 변호사, 종교인 특히 지 주교님을 위해서 기도 합시다.
(전주 교구 꾸르실로 사무국)
5. 전주 교구 울드레아 11월 17일 (10시 가톨릭센터)

(중 앙)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이 대 권
②3874 보좌 신부 서 석 구
사도 회장 이 북 석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꾸리아 윌레회: 다음주일 오후 2시
3. 교무금 협조에 감사: 미납 교무금 특례결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계속 협조 바랍니다.
4. 교무금 신입: 조속히 신입하여 교회 유지에 힘써시다.
5. 신용조합 보고: 10월 28일 현재
출자금 14,182,565원 예탁금 7,693,100원
대부금 26,301,600원 적금 3,401,273원
총자산 29,024,255원
조합 발전을 위해 분발합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40,69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령

1. 안토니오 제속 형제회 윌레회 (오늘 10시미후)
2. 신용조합 윌레회 (다음주일)
3. 11월중에 교무금 자진 신입 바랍니다
4. 11월은 연령성결 조상들을 위하여 기도와 미사봉헌 합시다.
5. 성당 신축 헌금에 감사합니다.
6. 중노 1 최동배 발도르메오 1,000
중노 1가 이수산나 1,000
중노 2가 박울리안나 5,000
다리리 공소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일동 2,640
예비자 할머니 500
중노 1가 무명으로 500
왕정리공소 석돌 두차 회사
경 10,640 누계 1,682,552
□지난 주일 봉헌금 19,19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박 종 근
사도 회장 김 종 환

1. 반상회 (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람)
11월 4일(월) 금암동 1반 송정원씨때 저녁 8시
5일(화) 금암동 4. 5반 사도회장님때 //
7일(목) 팔복동 팔복동회장때 //
8일(금) 금암동 6반 이덕우선생님때 //
2. 어린이 보레 오늘저녁 7시30분 미사후
3. 전주제지 사택미사 (오늘오후 3시)
4. 젊은이를 위한 광장 (매주 수요일 6~7시)
대상: 본당내 모든 젊은이 (예비자 포함)
□지난 주일 봉헌금 8,14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11월은 위령성월: 매일 미사후 합동으로 연도바침
2. 교무금 신입: 11월15일까지 신입요망
15일까지 미신입자는 사도회에서 배정 활동함.
3. 74년도 교무금 미납자는 속히 완납하여 교회운영에 협조합시다.
4. 주일 봉헌금 배가 정성어린 헌금으로 감사와 속죄 합시다.
5.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11월15일(금)
6. 신용조합 윌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조합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7. 성우회 윌레회: 다음주일 공식 미사후
□지난 주일 봉헌금 15,400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사도회 윌레회: 오늘 저녁 미사후 사도회 임원 전원과 구역장님들 참석 요망
2. 미사 시간 변경
아동미사 6시를 30분 앞당겨 5시30분으로
3. 예비자 교리 변경: 11월 3일, 10일 두주일 쉬겠음.
4. 영세하신 분께 축하드립니다: 10월 27일 24명 영세 했음.
5. 반회 시작: 임시 쉬었던 반회 계속함.
신청이 들어온 반은 그날로 하겠으며 미신청반은 다음주 주보에 날자를 지정하겠음.
6. 게시판 월말 결산보고서를 꼭 읽고 가지기 바람.
□지난 주일 봉헌금 11,32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정 승 현
사도 회장 이 현 재

1. 미사시간 변경, 주일, 평일, 저녁 미사 오후 7시 (11월 4일부터)
2. 유아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유아세례 있음.
3. 사도회 소식: 사도회 옥외행사 및 윌레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
장소: 내장사 시간: 오전 8시 출발
시일: 11월 3일
4. 구역 순회미사: 남노송동 11월 5일(화) 저녁 7시
동부교동 11월 7일(목) 저녁 7시
5. 예비자 교리: 월요일 저녁 7시 30분
6. 신용조합 소식: 직원 1명채용 김 마리아(동기)씨
필승 J. O. C

◇금주의 순정이 은인께 감사드립니다.
이 누시아 (귀남) 자모회 회장

□지난 주일 봉헌금 43,690원,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